



기고 김용호 여수소방서장

### 다중주택시설 화재 시 침착히 대처해야

현대사회는 건축물의 고층화, 복잡화, 밀집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의 고층건물은 다양한 용도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의 유동인구도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만큼 예전보다 화재나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그 규모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또한 이러한 화재는 사무실 용도의 건물보다도 대형판매 및 쇼

핑센터, 호텔, 영화관, 주상복합 건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건물 화재시 불법주·정차량으로 인해 소방 출동로 확보가 곤란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등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과 전기·가스 등 화기 취급이 많고 기상변화가 심한 겨울철에는 그 어느때 보다 화재발

생 우려가 높다.

아울러, 난초부터 친구나 가족 연인, 직장동료 등과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하고 각종 모임을 갖는 등 마음이 들떠 있게 마련이어서 자칫 안전의식이 소홀해지기 쉽다.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쇼핑센터나 영화관, 고층복합건물 등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물구조를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겁을 먹게 되어 이성을 잃고 무분별한 행위를 하게 되므로 화재시에는 그 건물구조에 익숙한 사람이 적절한 피난유도를 해야 한다.

또한, 평소 피난통로의 확보와 피난유도 훈련을 철저히 실시하고 건물 내부에는 두 개 이상의 피난통로를 설치하여 화재 등 유사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피난 유도시에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보다 가급적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차분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특히, 고층건물의 엘리베이터는 연기가 통하는 골짜기의 역할을 하게되어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금물이다.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는 어느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없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는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일상속에서 화재위험요인은 없는지, 각종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주변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 社 說

### 국가유공자 재판정 제도 개선해야

국가보훈처는 부정이 의심되는 국가유공자 재판정 절차와 관련된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훈처는 국민중심 보훈혁신 위원회 산하 재발방지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상을 당한 사람의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신규, 재심, 재확인,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상이의 특성상 일정기간이 지난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직권에 의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보훈처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권고 외에 수사기관의 요구 등이 있을 때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대상 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2~3년 주기로 하는 재판정 제도의 대상 질병 범위도 계속 넓혀나갈 방침이다. 기존에는 정신분열증 등 16개 질환만 해당됐지만 올해는 호전 가능성이 있는 화상 등 6개 질환을 추가한다. 아울러 각 질환별 장애측정 방법을 명시하고 폐암·후두암 등 악성종양의 신체부위별·진행단계별 등급기준을 세분화한다. 보훈심사위원회 구성도 학계와 군·경·소방 등으로 다양화한다.

이밖에도 보훈단체의 편법적 수익사업 및 회장 1인 중심의 단체 운영, 편향적 나라사랑교육 실시 등 조사결과에 대해 재발방지 이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보훈단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도록 단체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 겨울철 안전운행 생활화 해야

요즘 겨울철 새벽이면 목포, 광주에서 순천간 호남고속도로는 물론 섬진강을 끼고 있는 국도에서 자주 안개가 끼는 것을 볼 수 있다.

겨울이 지나고 상춘지절에 낮과 밤의 온도차이가 나면서 안개가 끼는 날이 앞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도로상을 질주하는 차량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야가 100미터도 채 안되는 어둠 속의 도로를 마냥 달리고 있다. 매년 안개로 인한 고속도로와 국도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안개는 바람에 약하고, 하늘이 맑아 공기가 습할 때 공기 속에 있는 물기가 땅 표면 가까이에서 엉겨 붙어 생긴다. 특히 새벽에 장막같이 두꺼운 안개가 끼어 있다가 해가 뜨면 공기가 데워져 안개가 흩날리면서 더욱 시야를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안개가 많은 새벽시간에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 번째, 안개가 끼어 있을 때는 시계(視界)가 아주 좁아지고 보이는 거리는 짧아져서 더욱더 감속운행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차끼리 서로 잘 볼 수 있도록 차폭등, 비상등, 안개 등 등 켜 수 있는 모든 등화장치는 다 켜서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상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쉽게 해야 한다.

세 번째, 편도 1차로인 국도상 커브 길을 뚫 때는 경적을 울려서 서로의 위치와 존재를 알려야 한다. 또 창문을 조금 열어 외부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자기 차선을 잘 보면서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에 명시된 사항들은 필히 숙지해야 한다.

안개가 자욱한 도로를 무사히 통과해 우리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해 명랑한 교통문화정착에 다함께 노력하고, 각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 비치하여 우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양동일 / 무안소방서 진입팀장

###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보면 지역경찰들이 당장 처리해주기 곤란한 민원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있다.

가령, ‘보복운전 피해를 당했는데 잡아달라’ 던지고 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 해당 차량을 바로 찾아서 조지를 취하고 싶으나 해당 차량을 당장 찾아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혹시나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었을 경우, 휴대폰에서 ‘스마트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국민제보’는 주로 교통위반 난폭운전 등 신고 그리고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성범죄 등을 112에 전화를 걸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어 자칫 신고자가 112에 전화를 걸며 받을 수 있는 부담감 없이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다.

특히 난폭운전, 교통운전, 보복운전 등 상대 차량의 번호판 및 법규위반행위가 나오도록 사

진촬영 혹은 동영상 촬영이 필요하기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고, 여성대상신고의 경우 자주 다니는 골목길이 너무 어둡거나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장소와 시간대를 포함하여 제보하면 관련 환경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기에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휴대폰 사용이 안 된다면 컴퓨터로 인터넷 ‘스마트국민제보’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기존 112신고와는 다르게 자신의 신고내역 부서배정 등 처리 과정 및 자신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처리 결과까지 알 수 있다.

경찰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찰관이 미처 보지 못하는 곳이 있다.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등을 겪었을 때 앞으로는 ‘스마트국민제보’를 이용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동참해 보면 어떨까.

나태환 / 광주경찰청 1기동대 순경

###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故事成語

墨 묵  
悲 슬플  
絲 실  
染 물들

### 墨悲絲染

▷ 뜻: 흰 실에 검은 물이 들면 다시 희지 못함을 슬퍼함. 즉 사람도 매사(每事)를 조심하여야 함.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010-5330-5533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겸 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민 책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